데스크 시각

박진현

새해엔 '희망생활백서'를 쓰자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해.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 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분당 삼백 타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독서량도 우리 윗세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잘 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문화아이콘 된 청년 백수

김영하의 장편소설 '퀴즈쇼'의 20대 주인공 민수와 친구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세상을 향해 억눌렸던 울분을 터뜨린다. 80년대에 태어나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은 기본이고,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도 문화적으로 세련된 코스모폴리탄으로 자랐건만 어이없게도 지금은 '노는 인간'으로 전락한 처지가 억울해서다.

지난해 이 같은 수많은 '민수' 들의 울분을 감싸안은 것은 문학이었다. 백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의 대거 등장으로 '백수 소설' '백수 문학'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가령 박민규는 '갑을 고시원 체류기'에서 자본주의에 꺾인 청춘들의 한숨을 시끌벅적한 수다 뒤에 묻어 두었고, 구경미는 '노는 인간'에서 자본주의 질서 바깥에 놓인 청년 백수들의 꼬질꼬질한 삶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어디 소설뿐인가.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드라마 '못 말리는 결혼'의 주인공 왕삼백은 방바닥에서 뒹구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1월 중순 방영을 앞둔 SBS '아들 찾아 삼만리'의 나정민은 시급(時給)에 울고 웃는 아르바이트 인생이다.

얼마 전 종영한 MBC 수목 드라마 '메리대구 공방전'의 20대 청춘 남녀 주인공과 KBS 월화드라마 '꽃 찾으러 왔단다'의 남자 주인공도 일찌감치 '일하는 인간'이길 포기했다.

그렇다고 죄다 구질구질한 백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박주영의 베스트셀러 '백수생활백서'의 서연이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기본생계만 해결하고 오로지 독서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웰빙백수'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백수의 삶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드라마틱' 하다. 멀쩡한 대학을 나오고도 (졸업장을 숨긴 채) 고졸 학력으로 대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취직하는가 하면 입시전쟁보다 더 힘들게 취업 준비에 올인 했지만 지하철 푸시맨이나 편의점 판매원으로 일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대 임금 근로자 367만 명 중 비정규직은 53%인 193만 명. 이 가운데 20~24세의 비정규직이 67%나 된다. 소위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20대의 95%가 평균 임금 88만 원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다는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著)

新 '레디메이드 인생'에 햇살을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

2007년 한해, 백수는 누구나 겪는(?) 통과의례가 됐다. 문제는 청년실업이 일상이 되다 보니 아예 취업할 엄두도 내지 않는 자포자기형 백수, 일명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사회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수보다 더 무서운 건, 다름 아닌 이들 '꿈을 잃은 젊은이'다.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부유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어깨에 얹혀 있는 과제가 어디 한둘일까 만은, 그래도 가장 먼저 부려야 할 짐은 청년실업 해소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대판 '레디메이드 인생'(채만식)의 패배주의를 걷어내는, 미래와 비전이 담겨 있는 '희망생활백서'를 쓰는 것이다. 백수 소설의 민수와 서연이로 살아가기엔 그들의 젊음이 너무 눈부시지 않은가.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최희동

분주한 정국, 침울한 호남

대선은 끝났다. 이변도 없었다. 2006년부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선거 막판에 터진 BBK동영상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고른 지지로 50% 가까운 득표를 하여 '빼앗긴 10년'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다만 호남에서 두 자리 지지율을 기록하겠다는 의지만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의 효과와 경제 살리기의 적임자라는 기대가 득표의 주요한 요인이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했다. 결국 노 대통령이 이명박의 당선에 기여한 제 1의 공신이 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진일보한 사회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계속된 설화(舌禍)와 아마추어적인 정책추진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가 가진 자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층인 서민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해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정권인수를 위한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측근과 전문가를 인수위원에 임명하고 정부기구축소와 경제회생을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부탁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값과 휴대전화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선거에 패한 신당이나 민노당, 민주당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바로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대선의 결과처럼 한나라당의 싹쓸이가 예상되어 환골탈태가 시급하기에 그렇다.

정국은 이렇게 분주하건만 호남은 지금 허탈함과 우려의 심정이 교차하고 있다. 대선에 무관심했던 초반, 이명박 당선자의 지지율이 두 자리를 유지하여 호남민심이 변한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지만 막판 민심의 흐름은 신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다시 몰표를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허탈했다. 너무 많은 표차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을 호남정권이라고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는 호남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권의 혜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호남정권을 만들어 놓고도 정권의 과실을 따지 못한 일부분의 책임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들의 아이디어 빈곤과 자질문제라는 여론의 질타도 있었다. 그러나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만큼 지역민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볼모로 한 우리 지역정치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한편으론 무조건 지지를 보낸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이제 낙담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냉철하게 판단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에 당당하게 호남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질과 실력을 갖춘 일꾼을 4월 총선에서 선출해야 한다. 과거처럼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헌금이나 친분에 의해 공천하는 일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희망의 새해가 왔다. 지혜를 짜내어 지금의 허탈함과 우려를 꿈과 희망으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고

김영록

낙후지역 대책도 차등화 돼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엊그제 어느 일간지를 보니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 지방대 출신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경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출신 구직자 44.6%는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가지 않고 수도권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고 답했다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선진국들 중 수도권 집중이 문제화되고 있는 나라들의 수도권 인구비중을 보면 프랑스가 18.7%,영국이 27.2%,일본이 27.2%수준으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 개발도 마찬가지다. 인력, 자금, 정보 등 주요생산요소의 90%가 밀집해 있고 강력한 흡인력이 있는 수도권에 대하여 지방의 균형발전 요구는 높을 수 밖에 없다.

근래 들어 국가 균형발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의 재원 배분방식을 들여다 보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기능이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균특회계의 배분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요소는 인구, 면적이며, 낙후도 요소는 재정력 지수, 주민세 소득할, 노인인구비율 등이다.

여기에서 인구의 경우 절대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수도권처럼 인구가 증가된 지역은 매년 배분액이 늘어나고 전남도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매년 배분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 또한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에도 가장 낙후된 전남이 울산, 대구, 대전, 광주보다도 많아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재정력 지수에 있어서도 경기도의 경우 도본청의 지방세수가 6조 5천억 원으로 3천 2백억 원인 전남도와 비교할 때 세수는 20배 차이가 나지만 균특 재원 배정액은 전남이 경기도보다 겨우 2배정도 더 받음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수를 인구증감률로 바꾸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배분액을 줄이고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늘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력지수에 있어서도 실질적 차이가 나도록 반영비율을 높여야 하고, 낙후도 요소중 주민세소득할은 1차 산업 비율로 바꾸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균특회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함께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낙후지역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은 전국을 3개 지역으로, 독일은 4개 유형으로, 스웨덴은 3개 유형으로, 미국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투자보조금이나 포괄보조금 또는 조세감면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늦게나마 낙후도에 따라 전국을 4개 그룹으로 구분을 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사설

2008년 광주·전남 도약의 해로 삼자

새해를 맞은 광주·전남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도약이다. 광주일보와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시·도민 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9.3%가 경제활성화를 올해 최대 지역현안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이 42.8%로 가장 높았고 기업투자유치가 36.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최대 역점 분야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58.6%였고, 가장 기대가 큰 공약은 일자리 300만 개 창출(41.3%)이었다. 지역민 10명 중 8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성장동력이 있어야만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은 광주·전남 지역에는 매우 중요한 해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형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인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되고,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전이 본격화된다. 광산업, 금형산업, 첨단부품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도 본 궤도에 올라 생산도시로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전남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 조성, 조선산업 활성화 등 낙후와 소외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형사업이 본격화 된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광주·전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올해는 광주·전남이 지역 진로를 크게 틀어 먼 바다로 나가는 첫 해다. '낙후와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훌훌 벗고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관건은 지역민의 의지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폭설에 파묻힌 광주·전남, 피해 최소화를

연말연시 광주·전남에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1일까지 나흘째 눈이 내려 광주의 적설량이 30㎝를 넘었다. 송년의 아쉬움과 새해맞이가 폭설과 궂은 날씨에 파묻힌 것이다.

연일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리산과 무등산도로 등은 차량 통행이 한 때 통제됐고 새해맞이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항공기와 선박 결항, 버스 단축 운행 등에 따른 교통불편도 잇따랐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 남구와 장성, 담양, 나주 등 곳곳에서 인삼과 고추 재배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렸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폭설대란을 빚었던 지난 2005년의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기상예보는 이번에도 빗나갔다. 기상청은 당초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직격탄을 맞은 곳은 호남이었다. 기상청은 관측장비의 부족으로 비보다 눈을 예보하기가 더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장비 탓을 하고 있을 지 한심하다.

폭설은 정확한 기상예보를 최대한 활용, 체계적이고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엉터리 예보로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폭설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기상예보 등 전반적인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행정기관은 제설작업과 피해복구를 서둘러야 한다. 시·도민들의 참여도 절실하다.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택가 골목길에 쌓인 눈까지 치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 집앞 눈 치우기' 조례까지 제정되지 않았는가. 시·도민들이 힘을 합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재 등용

조선 후기의 최한기(崔漢綺)는 '인정(人政)'에서 "품성이 편벽된 사람은 모든 언행이 다 편벽되고…, 이런 자가 관직에 임명되면 반드시 편벽된 논설을 제기한다"고 했다. 고금에 두루 통하는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금의 국정 성공 여부가 인재 발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음의 역설이다. 숨은 인재를 발탁해 등용하면 성공할 것으로 보았고, 주위의 친한 인물들만 등용하면 실패할 것으로 본 것이다.

중국에서도 예부터 인재 등용의 중요함은 여러 고사에서 드러난다. 춘추시대 인재를 잘 골라 쓰기로 유명한 백락은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고사를 만들어냈다. 진나라의 백락이 한 번 돌아본 말은 값이 뛰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韓愈)도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그를 알아볼 백락은 늘 있지 않다"라고 인재 식별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논어에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 공자의 제자인 중궁(仲弓)이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 되어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서 묻자 "어진 인재를 들어 써야 한다"고 답했다. "어떻게 어진 인재를 알고 등용하겠습니까?"라고 묻자 "네가 아는 인재를 들어 쓴다면 네가 모르는 인재를 남들이 그냥 두겠느냐?"라고 답했다. 모두가 인재 등용의 중요함을 이르는 대목이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 인선이 마무리됐다. 인선 당시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물밑 로비와 함께 휴대전화 벨 소리에 부쩍 민감했었다는 뒷얘기다. 인수위에 입성할 경우 청와대로 직행하거나 산하기관의 진출이 그만큼 쉽다고 여겼기 때문이리라. 더불어 인수위 인선에서 호남 소외 현상이 노골화됐다는 불만의 소리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 인수위는 차기정부 인물 지도와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친·불친을 떠나 참된 인재를 발굴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죽음 임박해 유언 남기는 사회통념 바뀌어야

동양과 서양의 유언 문화가 다르다. 동양이 죽을 때가 돼서야 유언하는 것과 달리 서양인들은 40~50대에 유언하는 게 일반화돼있다고 한다.

유언을 미처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 재산을 놓고 형제간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종 직전의 유언은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건강할 때의 유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뒷날과 앞날을 짚어보고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유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유언 전문 카운셀러가 있고 유언 교양강좌도 열린다. 교회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유언 미리하기와 곁들여 재산 1% 나눠쓰기라는 운동을 벌여 유언때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토록 유도한다.

우리 사회도 건강할 때 유언을 남기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수백억대 대포통장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법적인 소유주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기 어려운 상태의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라고 말한다.

최근 대포차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까지 횡행해서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6개월전 쯤 가까운 지인이 전화사기에 속아 사기범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일이 있었다. 돈을 보낸 직후 사기 당한 것을 알아차리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이 돈을 빼가는 것은 막았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 법규상 대포통장인 사기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면 사기범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 사기범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을 지급정지시켜 놓고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이 전국적으로 몇백억이 될것이다고 한다. 전화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